

21C 전력산업의 리더

# 제룡산업(주)

창업 17년, 종업원 130여명  
연간 매출 400억원의 견실한 전력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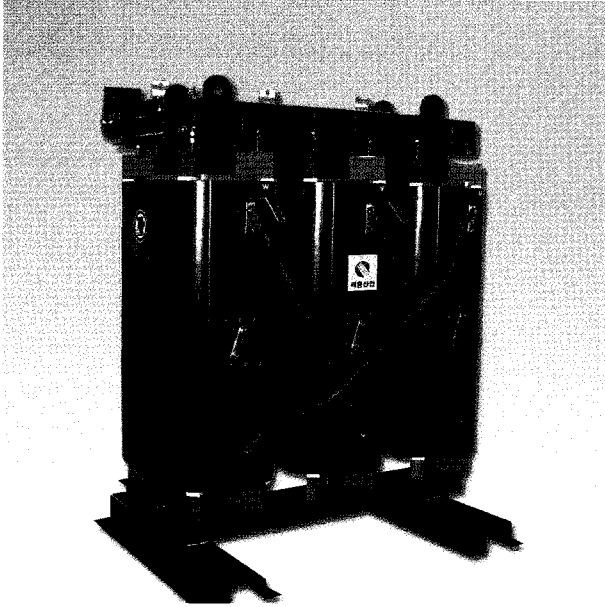
박 종 태 사장

지난 1986년 배전금구류사업을 시발로 전기계에 첫 발을 내디딘 제룡산업(주)는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종업원 130여명에 연간 매출 약 400억원의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품목도 배전금구류를 포함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인 아몰퍼스변압기 외에 여러 가지의 배전변압기류 그리고 송·변전 및 통신기자재 등 다양한 전력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전력벤처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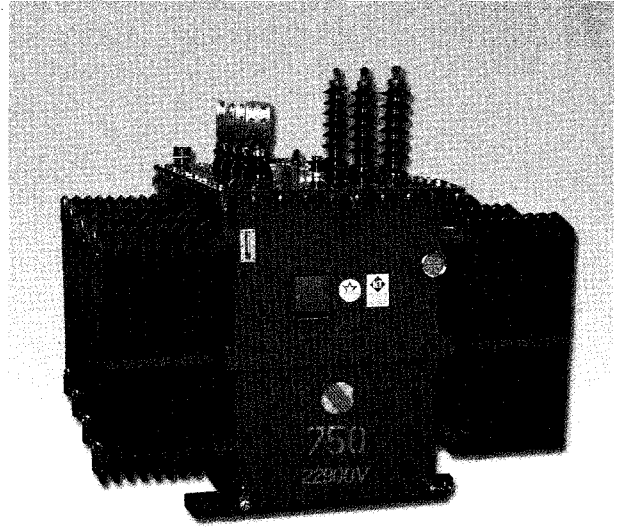
제룡산업(주)가 그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중전기분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존중의 창업정신”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의 기업이념으로 선진 경영 기법의 도입과 신제품개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과감한 투자 등이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다품종 생산전략으로 기반구축

특히 제룡산업(주)는 전력기기는 수명이 길고 기술변화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느리다는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전략을 제품의 다품종화에 맞추어 매년 새로운 신제품개발에 매진한 결과, 현재 약 200여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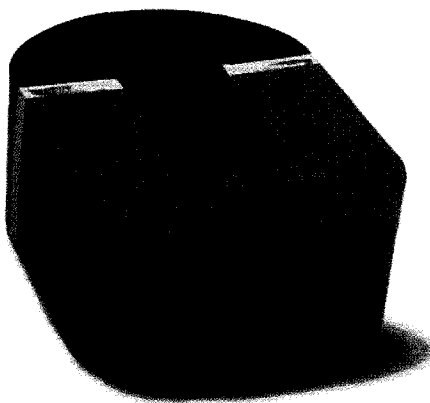
아몰퍼스 몰드 변압기



〈아몰퍼스 전력용 변압기〉

의 송·변·배전 및 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명실공히 종합 전력기자재 Maker로서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고착시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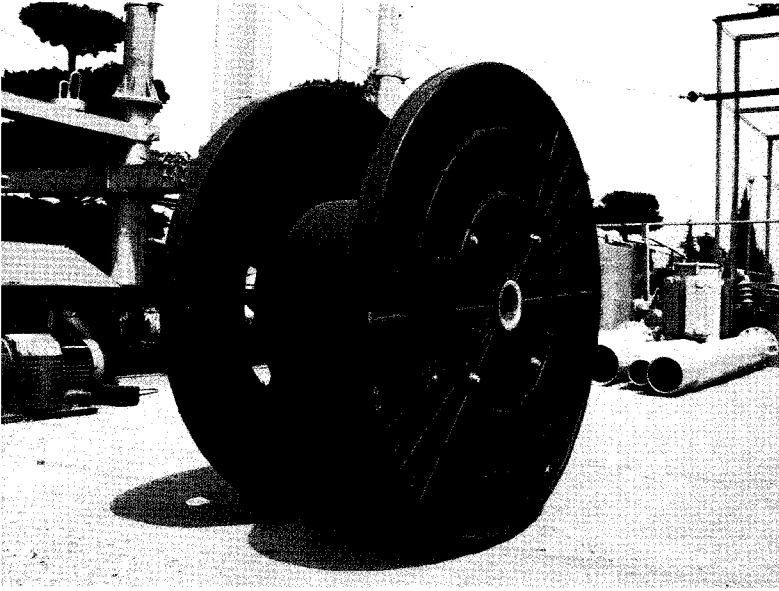
## 국내 유일의 아몰퍼스변압기 개발 생산업체



〈아몰퍼스코어〉

현재 제통산업(주)에서 핵심 주력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미)Honeywell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선정된 아몰퍼스변압기(Amorphous Transform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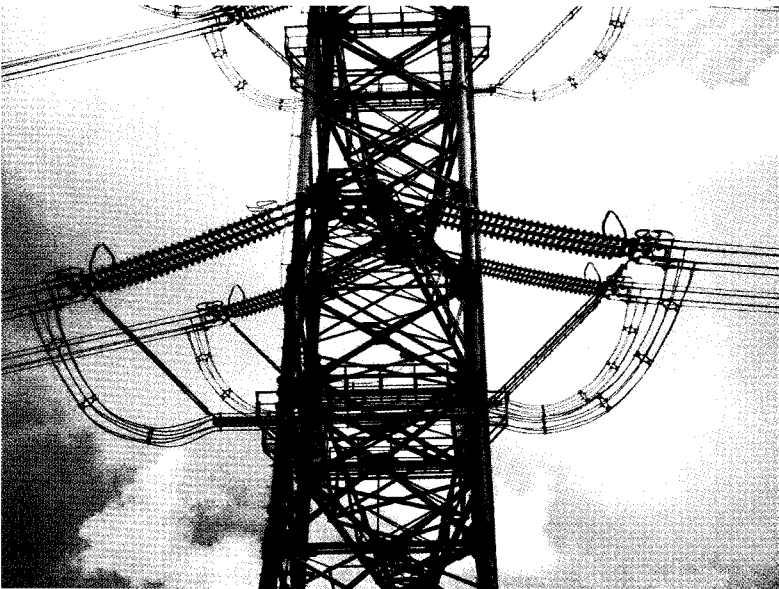
아몰퍼스변압기는 기존 변압기들이 철심소재를 규소강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신소재인 비정질자성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철심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되어 낭비



〈전선포장용 플라스틱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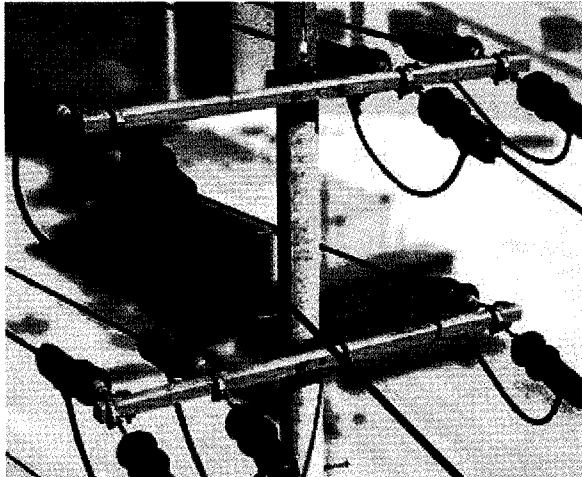
되고 있는 철손(무부하손)을 기존 변압기대비 75% 이상을 절감시켜 주는 획기적인 에너지절약형 변압기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운전중인 배전급 전력용변압기의 연간 무부하손실량은 약 740만MWh(이를 발전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에 달하므로 아몰퍼스변압기로 이러한 손실량 중 75%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해마다 값비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에너지절약시책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에너지절약기 자재의 핵심제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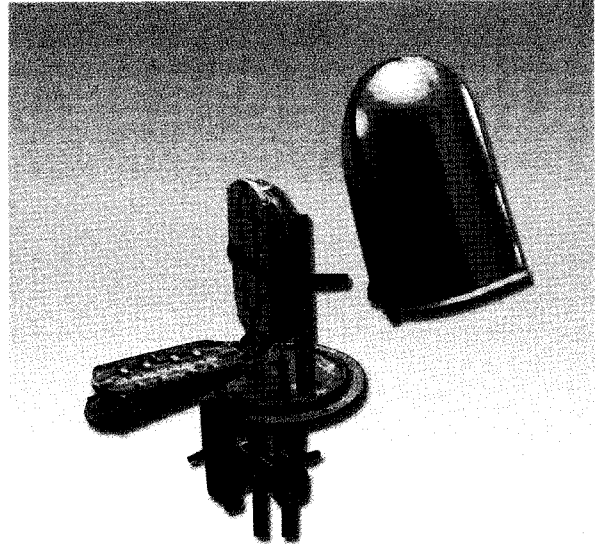


〈765kV 애자장치 금구류〉

지난 1990년초 앞으로의 전력기분야의 주요핵심 기술과제는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한 고효율기기의 개발이며, 이러한 고효율기기가 앞으로의 미래시장을 주도하여 나갈 것이라는 경영판단 하에 1995년부터 아몰퍼스변압기의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 부단한 노력과 아낌없는 과감한 투자를 고집스럽게 해오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단일형내장완철〉



〈OPGW 접속합체〉

##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도 상장

제룡산업(주)는 중전기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드물게 이미 지난 1997년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코스닥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동안 ISO9001 인증을 비롯한 국산신기술(KT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으며, 또한 INNO-BIZ 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벤처기업, 한전의 유망전력벤처기업 등에 선정되어 있다.

## 신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

제룡산업(주)의 박종태 사장은 앞으로 핵심사업 분야와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21C 신 경영문화를 도입·정착시켜 내실 있는 견실한 기업으로 그 위상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경영의지를 피력한다. 아울러 제룡산업(주) 임직원 모두는 제룡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